

여가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Leisure Activities on the Local Economy

오 윤 정 * 남 진 **
Oh, Youn-Jung Nam, Jin

Abstract

As Korea faces an era of ultra-aging low birth rates,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umber of areas at risk of local extinc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at leisure activities are factors that affect economic growth in non-metropolitan areas. The analysis is to be conducted by setting the 2019 national cities and provinces as the scope of analysis. GRDP i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and various factors related to leisure activities are extracted and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leisure activities in non-metropolitan areas had an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an in the metropolitan area.

In other words, in the metropolitan area, leisure activity factors were not a prominent factor due to the distribution of various industries, but in the non-metropolitan area, leisure activities were found to affect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suggest that leisure activities can be one of the detailed task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색인어 : 지역경제, 여가활동, 다중회귀분석

Keyword : Local Economy, Leisure Activit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석사과정(주 저자 : yunjjang0517@uos.ac.kr)

**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교수(교신저자 : jnam@uos.ac.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의 증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람들의 여가시간은 증가하였다. 특히 당일치기 여행을 통한 여가활동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숙박여행 횟수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국내 당일 여행 횟수 총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경험률은 92.4%로 나타났으며, 여행 횟수는 344,750천회, 여행 일수는 585,710천일, 여행 지출액은 44,183십억원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대비 국내여행 경험률, 여행 횟수, 여행 지출액 등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은 소득증대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내의 관광수요가 확대되었고, 관광산업은 국가 경제의 한 부문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관광주도형 성장에 관심을 보이며 관광부문을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이현재, 2012). 또한, 고용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한다(오경숙, 2012).

이를 통해 여가활동은 지역경제를 증진시킬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여가활동 즉, 관광은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관광주체(관광객),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자원)을 연결시키는 서비스 및 기업 간의 상호적인 관광활동의 체계이며, 지역관광개발의 경우에 정부, 기업, 지역주민간의 협동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민간주도나 지역주도, 공공주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권병욱, 2006). 문화체육관광부(2018)는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보고서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소비 흐름으로 국민들의 여행수요가 확대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민선7기 지자체 출범 등에 따라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역관광 발전 요구가 증대되는 분위기 속에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관광객도 만족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중심으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관광은 지역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켜 숙박업, 음식업, 소매업 등을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지역경제 활력에 영향을 준다.

해외에서는 지방경제성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여가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를 사례로 들 수 있다. 국토연구원 '유럽의 지역개발 성공사례와 동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징적인 고성(하이델베르크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 및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에게 관람과 실질적 체험을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매력도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지역경제성장에 여가활동이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여가와 지역경제 관련 기존 연구들은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감과 같은 주관적 연구, 사례를 통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여가활동의 소비를 요인으로 분석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의 소비를 통한 활동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히고,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9년으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 시군구 단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여가활동 및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관계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하여 여가활동의 정의와 변수를 도출하였다. 둘째, 한국관광공사의 지역별 관광지출액 자료를 토대로 관광을 중분류로 나누어 여가활동의 유의미한 변수로 구축하였다. 셋째,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여가활동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과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논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여가활동의 정의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하며, 직업상의 일, 필수적인 가사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양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관람, 관광, 취미·오락, 휴식 등)을 의미한다 (국가지표체계, 국민 여가활동조사).

여가활동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수 있다. 따라서,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 3조 1항에 따라 ‘여가’는 자유시간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한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 1호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에 따른 문화, 디지털, 디지털문화, 멀티미디어, 공공문화 콘텐츠, 에듀테인먼트를 의미한다. 「관광기본법」 제 13조에 따른 국민관광,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 제1호 및 제 3호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을 여가활동이라 정의한다.

표 1. 형태와 내용에 따른 여가활동의 구분

| 구분 | 내용 |
|----------|---|
| 소일형 여가활동 | 대중매체이용: TV시청 |
| |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휴식 |
| 오락형 여가활동 |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영화, 연극, 콘서트, 전시회, 박물관, 스포츠 관람, 기타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행동 |
| |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 등산, 하이킹, 드라이브, 쇼핑, 관광 및 구경 |
| |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컴퓨터 게임, 놀이, 유흥 |

이를 통해 이 연구의 여가활동의 정의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과 <표 1>에 따른 여가활동의 구분 중 오락형 여가활동을 정의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지역경제성장

한 지역의 정부, 기업, 주민 등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동태적역량의 내부효율과 외연능력에 관한 사대적 비교로 정의한다 (한국경제연구원, 2005). 지역경제성장은 크게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과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이 있다.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을 주장한 Solow(1956)은 토지와 같은 물질 자본의 축적과 인구의 증대가 수반하는 노동력의 증대에 따른 외생적 기술발전이 지역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즉, 노동이나 자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생적 변수들이 지역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경제성장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인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은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 지역의 성장이 어떤 내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어 발생하는지 규명하는 성장이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이다. 지역내총생산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 지역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합계로 각 지역의 경제규모,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한다. 또한, 지역경제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물리적(도시기반시설) 요인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1) 지역경제성장 관련 연구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내 관광자원의 지역경제 파급을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 model)과 프로빗(probit)을 이용하여 분석한 홍성효·김진환(2019)은 지역내 관광자원의 개발로, 기존 관광지 관람객 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로 서천군의 국립생태원을 이

용하였으며, 국립생태원 조성을 위해 투자된 비용 비해 소비지출액 증가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003년과 2010년 두 시점의 KTX 경부선과 경전선 자료를 이용하여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경제 및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재욱·우명재(2012)는 베타-컨버전스(Beta-convergence)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내총생산과 인구부분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KTX개통으로 지방 중소도시 수출요인이 작용하고 대도시에서는 흡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빨대효과가 나타났다.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지역의 경기변동 자료 중 월별 실업률과 제조업 생산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우영진·김의준(2017)은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의 구성이 다양한 지역일수록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제조업 생산 변동성이 낮아서 산업 다양성이 지역경제 성장에 양(+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 2001년~2009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경제성장에 중요소생산성과 지방정부역할이 생산성지수를 분석한 권영성·김희창(2011)은 기술적 효율성변화가 중요소생산성 증가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기술변화 요인이 중요소생산성 증가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요소생산성의 결정요인인 산출물의 증가율, R&D요소, 인적자본 요소, 집적경제요소, 맬퀴스트(Malmquist)지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광역경제권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될 때 중요소생산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창근 외 2인, 2009). 이는 경제규모를 확대되며 동일 경제권에 포함된 타지역으로 기술진보나 지식 등이 공간적 연계성을 가지며 파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광역시의 2000년~2017년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안영균(2017)은 공적분모형과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한 회귀모형으로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대구광역시의 수출입 증가가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지역내총생산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취업자 수 증가 정책을 수립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2) 관광과 지역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0년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RAS접근법을 활용하여 2000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분석한 전재균 외 2인(2006)은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지역단위에 적용시켜 지역경제를 분석하였다. 골프장건설관련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인원, 소득에서 파급효과가 일어났다. 또한, 부산지역의 산출액, 부가가치, 고용자수 대비 비중이 건설효과의 경우 지역경제에 있어서 대체로 효과적

으며 특히 취업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관광산업이 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오경숙(2012)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관광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낮으나, 노동집약적인 관광산업의 특성으로 고용효과와 부가가치효과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광산업의 수입의존도가 타산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수입유발효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선행연구 검토

| 구분 | 저자 | 자료 | 분석방법 | 연구내용 |
|---------------------------|--------------------|------------------------------|--------------------------------|--|
| 지역 경제성장 요인 | 홍성효·김진환 (2019) |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국립생태원) | 이중차분모형 프로빗 모형 | - 국립생태원 개원으로 서천군 내 관광지 관람객 수 증가에 기여 - 생태원 조성을 위해 투자된 비용에 비해 소비지출액 증가 효과는 미미함 |
| | 조재욱·우명계 (2014) | 경부선, 경전선 정차역 | 베타-컨버전스 모형 | - 고속철도 개통이후 빨대효과로 인한 경제적 측면에서 대도시 성장과 중소도시 쇠퇴가 이뤄짐 |
| | 우영진·김의준 (2017) | 실업률, 제조업생산지수 | 벡터 오차수정모형 | - 산업의 구성이 다양한 지역일수록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제조업 변동성이 낮아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
| | 권영성·김희창 (2011) | 전국 16개 시도 패널자료 | Malmquist지수 자료포락분석 (DEA) | - 기술적 효율성 변화가 중요소생산성 증가요인으로 나타남 - 기술변화 요인은 중요소생산성 증가를 저해함 |
| | 이창근 외 2인 (2009) | 매크로스트지수 | 자료포락분석 (DEA) | - 광역경제권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될 때 중요소생산성이 개선됨 |
| | 안영균 (2019) | 지방세통계연감 | 계량분석 | - 수출입 증가가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킴 - 지역내총생산 확대를 위해 취업자수를 늘릴 수 있는 정책 수행을 시사 |
|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요인 | 전재균 외 2인 (2006) |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 지역산업연관 모형 | - 골프장건설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취업유발인원, 소득이 증가함 - 건설 이후 사업 활동에 따른 파업효과는 매년 일정하게 항구적으로 지속됨 |
| | 오경숙 (2012)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산업연관분석 | - 관광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낮지만, 노동집약적인 관광산업의 특성으로 고용효과와 부가가치효과는 높게 나타남 - 관광산업의 수입의존도가 타산업에 비해 낮기에 수입유발효과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4. 연구의 차별성

이와 같이 여가와 지역경제 관련 기존 연구들은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감과 같은 주관적 연구, 사례를 통한 연구는 있으나 비수도권의 여가활동이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히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가활동을 통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Ⅲ. 현황

1. 지역 여가 통행 현황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사람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여가 통행량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Korea Transport DataBase, 이하 KTDB)의 기·종점 통행량(Origin/Destination, 이하 O/D) 자료를 통하여 <표 3>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3>를 통해 수도권의 여가 통행량은 출발과 도착, 양방향 모두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여가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이다. 경상북도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권역별 주력사업 발굴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토착화를 위한 청년관광인재 양성 등 관광일자리 창출과 민간주도형 관광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러 경상북도에 방문하였다.

표 3. 2019년 전국지역간 여가 통행량

| 단위: 통행/일 | O | D |
|----------|-----------|---------|
| 서울특별시 | 170,072 | 171,045 |
| 부산광역시 | 68,292 | 71,692 |
| 대구광역시 | 64,074 | 29,772 |
| 인천광역시 | 46,727 | 41,174 |
| 광주광역시 | 49,483 | 32,093 |
| 대전광역시 | 68,229 | 53,505 |
| 울산광역시 | 28,230 | 16,105 |
| 경기도 | 195,139 | 181,174 |
| 강원도 | 46,426 | 58,129 |
| 충청북도 | 56,967 | 46,709 |
| 충청남도 | 81,462 | 89,582 |
| 전라북도 | 36,642 | 44,000 |
| 전라남도 | 37,963 | 62,802 |
| 경상북도 | 51,746 | 73,550 |
| 경상남도 | 73,283 | 68,147 |
| 제주도 | 3,243 | 25,704 |
| 세종특별자치도 | 15,819 | 28,615 |
| 총 통행량 | 1,093,797 | |

(자료: 국가교통 DB 가공)

2. 전국 관광산업 지출액 현황

관광산업은 여가를 즐기는 모든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을 분류를 통해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4>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관광지출액 비교 자료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관광산업은 대분류에서 숙박업, 여행업, 운송업, 쇼핑업, 여가서비스업, 식음료업으로 <표 4>을 통해 나뉘볼 수 있다. 가장 많은 관광 지출액을 차지한 업종은 식음료업으로 대형쇼핑몰에서 소비된 액수보다 약 2.18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식음료업이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17개 자치구 중 식음료업의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에서 식음료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인천, 경기, 강원, 충북의 경우에는 호텔 및 콘도 즉, 숙박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19년 전국 관광 지출액

| 대분류 | 중분류 | 소비금액 (단위: 천만원) |
|--------|--------|-------------------|
| 숙박업 | 호텔 | 52,808 |
| | 콘도 | 201,389 |
| | 캠핑장/펜션 | 487 |
| | 기타숙박 | 82,317 |
| 여행업 | 여행업 | 19,296 |
| 운송업 | 육상운송 | 93,301 |
| | 수상운송 | 6,685 |
| | 항공운송 | 67,951 |
| | 렌터카 | 6,741 |
| 쇼핑업 | 면세점 | 68,794 |
| | 관광기념품 | 7,265 |
| | 레저용품쇼핑 | 229,008 |
| | 대형쇼핑몰 | 1,794,076 |
| 여가서비스업 | 카지노 | 0.03685 |
| | 관광유원시설 | 11,035 |
| | 골프장 | 144,869 |
| | 스키장 | 2,080 |
| | 기타레저 | 62,516 |
| | 문화서비스 | 57,782 |
| 식음료업 | 식음료 | 3,924,399 |

(2019년, 전국)

3. 국내여행 주요 방문지와 지역별 지출액 변화

<그림 1>은 한국문화관광원의 국내여행 주요방문지 자료로, 2010년과 2019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를 통해 그래프로 가공하였다. 2010년 국내여행 주요 방문지로

는 경기도가 1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북이 11.1%, 경남이 10.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국내여행 주요 방문지는 경기도가 17.4%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약 5.4%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원도가 13.6%로 나타났고, 경북과 경남,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10년과 19년을 비교했을 때, 10년 주요 방문지가 아니었던 강원도가 13.6%로 새로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를 여행할 수 있는 서울역과 강릉역을 연결하는 노선인 KTX 강릉선 개통으로 인해 강릉을 포함한 영동 지역 발전까지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이제용·김영표, 2020). KTX 강릉선 개통으로 10년과 다르게 19년 국내여행 주요 방문지로 강원도가 13.6%로 나타났으며, 19년 주요 방문지로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충청남도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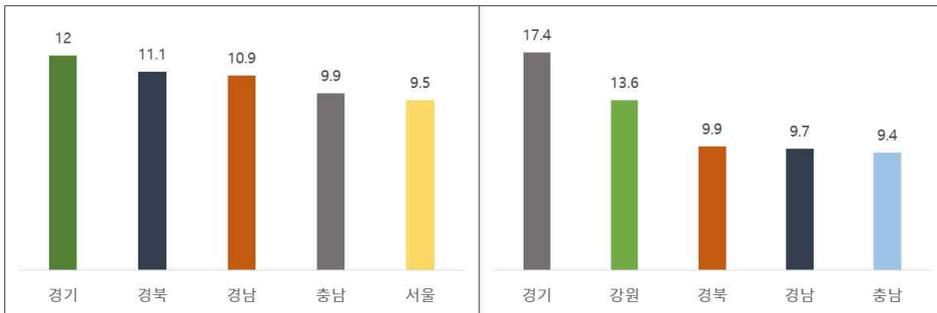


그림 1. 국내여행 주요 방문지 (단위: %)

한국관광공사의 Data Lab에서 제공하는 2019년 지역별 카드 매출액에 따른 소비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1>과 <그림 2>를 통해 2019년 주요 방문지와 지역별 지출액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림1>은 경기가 2019년 주요 방문지로 나타났으나, 실제 소비금액은 서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2>를 통해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지출액이 크게 나타났으나, 주요 방문지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19년 다음 주요 방문지는 경북으로 보이지만 지역별 지출액은 가장 낮은 금액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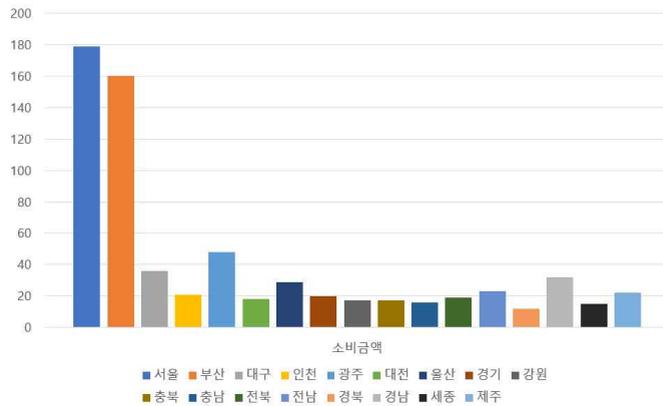


그림 2. 2019년 지역별 지출액 (단위: 천원)

IV. 분석

1. 분석모형

이 연구는 ‘여가활동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준다’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두 개 이상의 연속형 독립형 변수가 연속형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여가활동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y = a + b_1x_1 + b_2x_2 + \dots + \epsilon$$

2. 변수구성

본 연구에서 지역경제를 대표변수로 설정한 종속변수는 2019년 전국 시군구의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이다. 국가경제지표로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 생산물가치의 합, 즉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 종속변수로 지역내총생산을 설정함으로써 독립변수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 독립변수는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축제, 관광지출액_식음료업, 관광지출액_여가 서비스업, 관광지출액_쇼핑, 지역관광객수, 주요 관광지를 여가활동 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여가활동을 제외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설정하였다. 지역경제성장은 정치·행정적 요인(정치·행정제도적 요인포함),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총인구수, 종사자 수, 재정자립도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표 5. 변수 구성

| 변수 | | 측정방법 | 단위 | 출처 |
|-------|------------------|---------------------------------|-----|---------------------|
| 종속 변수 | 지역내총생산 (ln GRDP) | ln(전국 시군구 GRDP) | 백만원 | KOSIS, 지역내총생산 |
| | 지역축제 | 지역 축제 수 | 개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
| 독립 변수 | 관광지출액_식음료 | 일반음식점, 음료점, 주점 (거주민 소비 제외 분석) | 백억 | 한국관광공사, 지역별 관광지출액 |
| | 관광지출액_여가 | 관광유원시설, 골프장, 스키장, 기타레저, 문화서비스 | 백억 | 한국관광공사, 지역별 관광지출액 |
| | 관광지출액_쇼핑 | 관광기념품, 대형쇼핑몰, 레저용품쇼핑(거주민 소비 제외) | 백억 | 한국관광공사, 지역별 관광지출액 |
| | 지역관광객 수 | 지역관광객 수 | 명 | 문화체육관광부,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
| | 주요 관광지 | 지역 관광지 수 | 개 | 문화체육관광부, 주요관광지점 |
| | 총인구수 | 주민등록상 인구수 | 명 | KOSIS, 세대별인구 |
| | 종사자수 | | 명 | KOSIS, 사업별 종사자수 |
| | 재정자립도 | 세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 | % | KOSIS, 재정자립도 |

(기준 : 2019년, 전국 시군구)

위의 <표 5>와 같이 변수를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여가활동 독립변수로 일정기간(2일 이상) 지방정부가 개최하며 지역주민과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예술축제를 ‘지역축제’ 변수로, 또한 식음료, 여가, 쇼핑 관광지출액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관광지출액 변수는 관광의 중분류로 나누어, 숙박을 제외한 당일치기 여행을 기준으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관광지출액_여가’는 관광유원시설, 골프장, 스키장, 기타레저, 문화서비스에 소비한 금액을 더한 변수이며, 관광기념품, 대형쇼핑몰, 레저용품쇼핑 판매 금액은 ‘관광지출액_쇼핑’ 변수로 설정하였다. ‘관광지출액_식음료’ 변수는 거주민 소비제외 분석한 값으로 일반음식점, 음료, 주점에서 소비한 금액을 더한 변수이다. 또한, 지역별 주요 관광지점에 방문한 인구수를 ‘지역관광객 수’ 변수로 하였고 전국 시군구 주요 관광지점을 ‘주요 관광지점’ 변수로 구성하였다.

표 6. 변수 기술 통계량

| 변수 | | 단위 | 최솟값 | 최댓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종속 변수 | 지역내총생산 (ln GRDP) | | 12.7 | 18.1 | 15.3 | 1.1 |
| | 지역축제 | 개 | 0 | 14 | 3.1 | 2.5 |
| 독립 변수 | 관광지출액_식음료 | 백만원 | 500.0 | 1,370,953.0 | 173,897. 0 | 221,554.6 |
| | 관광지출액_여가 | 백만원 | .0 | 729,818.0 | 11,481.3 | 63,108.2 |
| | 관광지출액_쇼핑 | 백만원 | .0 | 1,712,307.0 | 835,697. 6 | 11,411,000.1 |
| | 지역관광객 수 | 명 | .0 | 13,543,199 | 220,999. 1 | 2,450,143.4 |
| | 주요 관광지 | 개 | .0 | 109 | 26.34 | 25.124 |
| | 총인구수 | 명 | 261 | 10,010,983 | 143,551. 5 | 672,288.9 |
| | 종사자 수 | 명 | 4,573 | 698,840 | 100,504. 6 | 107,696.2 |
| | 재정자립도 | % | 5.1 | 64.6 | 23.1 | 15.4 |

이 연구는 전국 227개 시군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여가활동 요인들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변수인 지역내총생산(GRDP)에 로그를 취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여가활동을 나타내는 지역축제, 관광지출액_식음료, 관광지출액_여가, 관광지출액_쇼핑, 지역관광객수와 주요 관광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총인구수, 종사자 수, 재정자립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6>와 같다.

3. 분석결과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먼저 이 분석의 Durbin-Watson 통계량은 1.450으로 나타나 오차항이 독립성을 만족하며, 4보다 0에 가까운 수치이므로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회귀모형의 수정된 R^2 값에 따라 75.8%의 설명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여가활동 독립변수인 지역축제는 GRDP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많을수록 지역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하며 특색있는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유의하고 양(+의 파급효과를 준다는 결과이다. 둘째, 식음료와 여가 관련 산업이 증가할 때, GRDP의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음료업의 경우 관광지출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으로, 해당 변수의 유의확률이 0.018로 유의하였다. 즉, 식음료업 산업이 증가할 때, 지역경제에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셋째, 관광지출액 중 여가 서비스업이 증가할 때, 지역경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지역 관광객 수가 많을수록 지역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해당 변수의 유의확률은 0.033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관광산업을 통한 효과들은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역관광객 수를 늘릴 수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표 7. 여가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수 | 계수 | 표준오차 | B | t | 유의확률 | 공차 | VIF | |
|------|------------|-----------|------|---------|--------|---------|------|-------|
| (상수) | 14.049 | .091 | | 154.517 | <.001 | | | |
| 독립변수 | 지역축제 | 1.031E-8 | .016 | .091 | 2.637 | .009** | .901 | 1.110 |
| | 관광 지출액_식음료 | 6.860E-6 | .000 | .133 | 2.391 | .018** | .348 | 2.875 |
| | 관광지출액_여가 | -1.896E-6 | .000 | -.105 | -2.888 | .004** | .817 | 1.224 |
| | 관광지출액_쇼핑 | 1.509E-9 | .000 | .015 | .456 | .649 | .990 | 1.010 |
| | 지역관광객수 | 4.733E-8 | .000 | .102 | 2.141 | .033** | .479 | 2.089 |
| | 주요 관광지 | -0.003 | .002 | -.071 | -1.479 | .141 | .470 | 2.125 |
| | 총 인구수 | 1.031E-8 | .000 | .006 | .172 | .864 | .864 | 1.158 |
| | 종사자 수 | 6.493E-6 | .000 | .612 | 10.045 | <.001** | .290 | 3.445 |
| | 재정자립도 | .016 | .003 | .216 | 5.360 | <.001** | .663 | 1.508 |

$$R^2=0.768, \text{ Adjusted } R^2=0.758, \text{ Durbin-Watson}(1.450)$$

주: 종속변수는 GRDP(2019), **p<0.001, *p<0.05

V. 결론

최근 경제가 성장하며,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그만큼 일 못지 않게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유홍준 외 2인, 2018). 또한, OECD도 2011년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포함한 11개 영역의 24개 지표를 활용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단어라기보다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들이 주목하는 중요 개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민경선, 2018). 즉, 여가는 점차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여가활동 요인을 파악하고, 여가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

활동 요인은 지역축제, 관광지출액 식음료와 여가, 쇼핑 지출액과 지역관광객 수, 주요 관광지 수 등 6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 요인으로 지역축제, 관광지출액 중 여가와 쇼핑, 지역관광객 수로 나타났다. 지역축제 개최 수가 늘어날수록, 여가와 쇼핑업이 증가하고, 지역을 관광하러 온 관광객 수가 증가할수록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가활동이 지역경제에 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축제를 통한 여가활동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특색있는 지역축제가 개최되도록 지역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식음료업과 여가서비스업의 관광지출액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식음료업과 여가 서비스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선순환 체계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지역이 강한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추구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세부적인 목표인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가활동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권영성·김희창. (2011).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중요소생산성 결정요인 분석-Malmquist지수와 Barro의 정부지출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지역경제연구』
2. 민경선. (2018). 「워라밸 세대의 여가와 삶의 만족도」, 『한국웰니스학회지』, Vol.23 No.3
3. 박미숙·김용구. (2016). 「고속철도 KTX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응용통계연구』, Vol. 29 No. 1
4. 박용순·강덕제. (2021). 「관광객의 지역 이미지 형성이 관광 만족에 미치는 영향-전라북도 2개 시·군을 중심으로」, 『여가관광연구』, Vol. 23 No. 2
5. 심재훈. (2022).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연구』, Vol. 45
6. 오경숙. (2012). 「관광산업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분석」, 『경영경제』, Vol. 45 No. 1
7. 이현재. (2015). 「우리나라의 관광수입이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광연구』, Vol.30 No.2
8. 윤인진·배은식. (2009). 「여가활동이 변화와 경제활동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의 비교」, 『여가학연구』, Vol. 7 No. 2
9. 이창근 외 2명. (2009). 「우리나라 지역의 중요소생산성과 결정요인분석: DEA와 2SLS를 이용하여」, 『지역연구』, Vol. 35 No. 1
10. 장윤정·이승일. (2010). 「거주지의 여가환경이 여가통행 거리에 미치는 영향분석-서울시 내부통행 중심으로」, 『국토계획』, Vol. 45 No. 6
11. 전재균 외 2명. (2006). 「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심형 관광목적지의 지역경제적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8 No. 4
12. 정병웅·김병래. (2022). 「여가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이 시점간 사회·경제적 특성변화:2000년과 2007년 도시근로자 가구주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Vol. 21 No. 4
13. 조재욱·우명제. (2014).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경제 및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대한민국 KTX 경부선·경전선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Vol. 49 No.5
14. 차경수·박민수. (2019). 「부산방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1 No. 2
15. 최준석. (2020). 「균형발전지표로 측정된 지역격차」, 『한국지역개발학회』, Vol. 2020
16. 황경호. (2021).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분석」, 『문화산업연구』, Vol. 2021 No.1
17. 홍성효·김진환. (2019). 「지역 내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파급에 대한 실증분석: 국립생태원 사례」, 『지역정책연구』, Vol. 30 No. 1

여가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오윤정¹ · 남진^{*}

Oh Youn Jung¹ Nam Jin^{*}

주요어 : 여가활동, 지역경제, 다중회귀분석

대한민국은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로 접해가며 수도권으로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집중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되며, 지방소멸위험지역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구현의 세부적인 요소를 설정하였다. 세부적인 요소로 여가활동을 설정하고 이를 다중회귀분석의 변수로 설정하여 여가활동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여가활동이 비수도권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9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며, 전국 시도단위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관광지출액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을 세부 분류하여 여가활동 관련 요소를 추출하여 독립변수로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내총생산(GRDP)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여가활동이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은 다양한 산업들이 분포하고 있어 여가활동 요인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특정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 많기에 여가활동이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비수도권의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가활동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세부적인 과제 중 하나인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 관광 구현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촌 조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 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